

## 중국어 정도보어의 한국어 번역 실제\*

유재성\*\* · 이용태\*\*\*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중국어 정도보어의 정의와 특징
  - 1) 정도보어의 정의
  - 2) 정도보어 구문의 술어
  - 3) 구조조사 '得'의 사용
3. 중국어 정도보어의 한국어 번역 방안
  - 1) 상대보어인 경우
  - 2) 정도보어인 경우
4. 나오는 말

### 국문초록

중국어에서는 보어가 한국어에서보다 더욱 폭넓게 많이 사용되며 사용되는 보어는 정의와 기능에서도 서로 다르게 사용된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보어가 주어 성분을 보충 설명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술어의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이처럼 두 언어 간에는 보어의 기능과 역할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한 번역이든 한·중 번역이든 간에 보어를 동일 성분으로 전환하여 사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의 번역을 수행하든 보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정도보어와 관련한 중·한 번역의 틀을 모색하고자 한다.

**키워드:** 문장성분, 보어, 중국어 정도보어, 구조조사 '得', 한국어 번역

\* 본 논문은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서일대학교 비즈니스중국어과 부교수(제1저자)

\*\*\* 백석대학교 어문학부 교수(교신저자)

## 1. 들어가는 말

중국어에서 보어(補語)는 술어(謂語)를 보충 설명하는 문장성분이다. 보어는 술어 뒤에 위치하여 술어 동작의 경과한 시간·수량·정도·결과·방향·가능성 등을 나타내거나, 사물의 성질 및 형상의 정도 등을 보충 설명하는 부가 성분을 말한다.

중국어의 보어 성분은 한국어의 보어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에서 말하는 보어는 ‘그는 학생이다’는 문장에서 ‘학생’과 같은 성분을 말하며, 이는 주어 ‘그’에 대한 보충 내용이다. 반면, 중국어에서의 보어는 술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며, 이들 양자 간에는 개념상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 1) a. 그는 **학생**이다.  
주어 보어  
b. 她 长 得 **很漂亮**.  
주어 술어 보어

한국어의 경우에 보어 ‘학생’은 주어 ‘그’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고 있다. 반면, 중국어의 경우 보어 ‘很漂亮’(아주 예쁘다)은 술어 ‘长’(생기다)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에서의 보어는 주어와 관계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보어가 술어와 관계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와 중국어 간의 보어에 대한 개념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위의 예문 a를 중국어로 바꾸어 보면, 한국어에서의 보어가 중국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 수 있다.

- 2) a. 그는 **학생**이다.  
주어 보어  
b. 他 是 **学生**.  
주어 술어 목적어

한국어에서의 보어 ‘학생이다’는 중국어에서 ‘是学生’으로 표현된다. 이때 ‘是’는 판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이고, ‘学生’은 이 동사의 목적어(賓語)로 분류된다. 결국 이 경우에서처럼 한국어에서의 ‘보어’가 중국어에서는 ‘술어+목적어’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위의 예문 b를 한국어로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다.

- 3) a. 她 长 得 **很漂亮**.  
 주어 술어 보어  
 b. 그녀는 **아주 예쁘게** 생겼다.  
 주어 부사어 술어

중국어에서의 ‘很漂亮’은 어법상 정도보어로 설명되는데 한국어에서는 ‘아주 예쁘게’처럼 부사어로 번역된다. 중국어의 문장성분에 보어가 있긴 하지만 한국어의 문장성분 중 이에 해당되는 보어가 없고, 한국어에서의 부사어 개념 중에는 중심어에 대한 수식과 중심어에 대한 보충 설명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의 보어는 한국어에서 보어로 해석·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부사어처럼 풀이된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많은 혼동을 초래하고,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많은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4) 그는 그 문제에 **옳게** 답했다.  
 a. \* 他**很对地**回答问题。  
 b. 他(回答)问题回答得**很对**.  
 5)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a. \* 房间**很乾淨地**打扫了。  
 b. 房间打扫得**很乾淨**.

이렇게 중국어에서의 보어가 한국어에서 부사어처럼 쓰이고,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데 적지 않은 실수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sup>1)</sup> 또한 이와 관련한 중한 번역 관련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sup>2)</sup>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정도보어에 대한 연구가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대학원에서 적지 않은 석사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sup>3)</sup> 중국어의 여러 보어들 중 특히 정도보어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중국어의 정도보어가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어야 바람직한지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이와 관련한 논문으로 '김영수, 「한어의 '得'자 보충어의 의미와 조선어에서의 대응관계」, 『중국조선어문』, 1997' 등을 들 수 있다.
- 2) 보어의 번역에 관해 참고할 만한 논문으로는 '荀春生, 「对日本学生的补语教学」, 『对外汉语教学论文选』, 北京: 北京语言学院, 1983.'을 들 수 있다.
- 3) 임영학, 「教學을 위한 中韓翻譯의 實際(Ⅱ): 정도보어를 중심으로」,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논문집, 2001.  
 위수광, 「현대 한어 정도보어 상태보어 구조상 비교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변지영, 「현대 중국어 '원인-결과' 표시 정도보어 구조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선희, 「현대 중국어의 정도보어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黃叶明, 「現代漢語狀態補語的語義指向分析」, 浙江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農朗詩, 「程度補語“極”、“透”、“死”、“坏”个体研究」, 广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박현정, 「현행 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교과서 《輕輕鬆松》의 정도보어 분석과 그 효과적인 지도방안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지은, 「중국어 정도보어 지도방안 연구: 외국어 고등학교 교과서 <輕輕鬆松>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이은화, 「중국어 정도보어의 한국어 대응형식과 한국인 학습자의 정도보어 습득의 상관」, 中國語文論叢, 2011.  
 유승리, 「현행 중국어 교과서(8종)에 출현한 程度補語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이경진, 「보어에 나타난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 '跑得快'의 중한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2015.  
 민송이, 「고등학교 『중국어 I』의 정도 표현 활용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周 怡, 「現代漢語“得”字程度補語結構的句法研究」, 湘潭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제혜민, 「고등학교 교과서 『중국어 I·II』 정도보어 지도방안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2. 중국어 정도보어의 정의와 특징

### 1) 정도보어의 정의

중국어의 정도보어는 현재까지도 학자마다 정도보어를 정의하는 범위에 차이가 있다. 또한 이를 칭하는 용어도 상이하다. 이는 1980년대 중국 현대 한어 어법학계에서 동보(動補) 구조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정도보어의 의미가 세분된 것인데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정도보어와 관련하여 나름의 설을 세우고 있으나 아직 확고히 정립된 이론은 없는 실정이다.<sup>4)</sup>

정도보어는 일반적으로 술어(형용사·심리동사 등) 뒤에서 술어가 도달한 정도를 보충 설명하거나, 어떤 동작이나 상태 등을 평가·묘사 설명하는 성분을 일컫는다. 예를 살펴보면,

- 6) a. 他累得<sup>很</sup>. (정도)  
그는 **아주** 피곤하다.  
b. 他念得<sup>熟</sup>. (상태)  
그는 **익숙하게** 읽는다.

a에서는 ‘아주 피곤하다’라는 피곤함의 정도가 심함을 표시한 문장이고, b에서는 ‘아주 익숙하게 읽는다’라는 어떤 동작의 상태나 상황을 묘사한 문장이다. 이 두 문장은 모두 일반론적 관점에서의 정도보어에 속하는 예문이지만 분명히 의미상 차이를 보인다. 정도보어는 의미 및 구조의 쓰임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 명료한 정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정도보어의 다양한 역할과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에 따라 어떤 학자는 이들을 더욱 세분하여 정도보어와 상태보어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sup>5)</sup>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

4) 위수광, 「현대 한어 정도보어 상태보어 구조상 비교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쪽.

5) 이런 부류의 책으로는 ‘崔桓 옮김, 『現代中國語表現語法』, 대구: 중문, 2001.’과 ‘許成道譯,

들은 이 모두를 하나의 정도보어로 묶어서 함께 설명한다.<sup>6)</sup> 근래에 중국 문법요목 및 문법서의 정도보어 용어 현황을 정리한 논문에 따르면, ‘정도보어’라고 통칭한 경우가 71%로 가장 많았고, 정도보어와 상태(정태)보어로 개념을 구분한 경우가 18%, 정태(상태)보어라고 칭한 경우가 12%라고 설명하고 있다.<sup>7)</sup> 이와 관련한 정도보어와 상태보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3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 2) 정도보어 구문의 술어

중국어 정도보어 구문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술어 그리고 보어를 갖는 문장을 말한다. 정도보어 구문에서 술어는 주로 동사이거나 형용사가 사용된다. 이들 사이에는 약간의 의미적 차이를 갖는다.

동사술어문인 경우에는 그 동작이나 행위가 완료되었거나 혹은 이미 완성된 내용들이 주로 사용된다. 이외에도 습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내용들도 사용되며 이들은 모두 어떠한 내용이 일정한 정도에 도달됨을 나타낸다. 예를 보면,

- 7) a. 剛才我喝得很多。(완료)  
방금 나는 아주 많이 마셨습니다.  
b. 他睡得早, 起得晚。(습관성)  
그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난다.

형용사술어문인 경우에는 대체로 상태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나타낸다. 예를 보면,

『현대중국어어법론』, 서울: 사람과 책, 1997.’ 등을 들 수 있다.

6) 맹주억, 『현대중국어문법』, 서울: 청년사, 1994, 307쪽.

7) 위수광, 「교육문법항목 ‘정도보어’의 현황분석과 표준화를 위한 제언」, 『중국어문학논집』 제115호, 2019, 259쪽.

- 8) a. 他的优点**多**得很。(정도)  
 그의 장점은 아주 **많다**.  
 b. 这儿的交通**方便**极了。(정도)  
 이곳의 교통은 아주 **편리하다**.

그리고 이들 형용사 술어는 주로 성질형용사가 사용된다. 감각기관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성질의 형용사와 심리·감각 상태를 표시하는 성질·감각형용사가 정도보어를 갖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때문에 성질형용사가 사용된다. 반면, 상태형용사<sup>8)</sup>와 비술어형용사<sup>9)</sup>의 경우에는 정도보어 구문의 술어로 사용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9) a. 상태형용사<sup>10)</sup>  
 \* **雪白**得很。(눈처럼 새하얗다)  
 \* **雪白**极了。  
 \* **绿油油**得很。(질푸르다)  
 \* **绿油油**极了。  
 b. 비술어형용사<sup>11)</sup>  
 \* **中式**得很。(중국식의)  
 \* **中式**极了。  
 \* **大型**得很。(대형의)

8) 이들 형용사는 비유형형용사(比喻型形容词)라고도 하는데, 이는 낱말의 결합 구조상 A는 B의 형용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함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南宮良錫·尹貞姬, 『중국어기초문법』, 서울: 시사에듀케이션, 1997, 51쪽)

9) 이들은 한정어(定语)로만 쓰일 뿐 술어로는 쓰일 수 없는 형용사들이다. 예를 들어 ‘副’라는 형용사는 ‘副教授’·‘副主任’·‘副總理’에서와 같이 명사를 수식할 수는 있지만 술어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명사나 형용사처럼 하나의 단어로 독립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형용사를 비술어형용사(非謂形容词) 또는 구별사(區別詞)라고 한다. (南宮良錫·尹貞姬, 『중국어기초문법』, 위의 책, 60쪽)

10) 이런 종류에 속하는 형용사로는 다음의 낱말들을 더 추가할 수 있다. 冰涼(얼음처럼 차갑다)·漆黑(칠흑같이 어둡다)·滾热(끓는 물처럼 뜨겁다)·直笔(붓대처럼 곧다)·通红(새빨갳다) 등이 있다.

11) 이런 종류에 해당하는 상용 낱말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즉, 男·女·正·金·银·彩色·初級·共同·公共·袖珍 등이 있다.

- \* 大型极了。
- \* 公得很。(수컷의)
- \* 公极了。
- \* 母得很。(암컷의)
- \* 母极了。

한편 동사술어문인 경우 동사는 주로 심리동사<sup>12)</sup>이다. 이외의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정도보어를 갖지 못한다. 하지만 일부 동사에서는 간혹 가능하기도 하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들을 들어보면, 需要·费·照顾·缺·缺少·缺乏·像 등이다.

### 3) 구조조사 ‘得’의 사용

일반적으로 술어와 정도보어 사이에는 구조조사 ‘得’를 사용한다. 즉, ‘주어 + 술어+得+ 보어’의 형식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 10) a. 他说得很流利。  
그는 아주 유창하게 말한다.
- b. 他高兴得一夜未睡。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즐거웠다.

위의 구문 a는 동사술어로 말하는 정도가 아주 유창함을 표현한 것이고, 구문 b는 형용사술어로 기쁜 상태를 표현한 문장이다. 일반적으로 동사나 형용사 뒤에 쓰여 동작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경우 ‘得’를 포함하여 정도보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상태가 아닌 정도의 의미를 나

12) 이런 종류의 동사를 예를 들면, 爱·恨·怕·喜爱·憎恨·害怕·喜欢·厌恶·珍惜·羡慕·讨厌·希望·想念·思念·惦念·佩服·感到·觉得·认为·痛心·奇怪·赞成·吝惜 등이 있다. ([https://wenku.baidu.com/view/84439bd180eb6294dd886c51.html?fr=incomel-doc-search&\\_wkts\\_=1717723626466&bdQuery=心理动词&wkQuery=心理动词&needWelcomeRecommand=1](https://wenku.baidu.com/view/84439bd180eb6294dd886c51.html?fr=incomel-doc-search&_wkts_=1717723626466&bdQuery=心理动词&wkQuery=心理动词&needWelcomeRecommand=1))

타내는 심리동사나 형용사는 구조조사 ‘得’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 11) a. 商店里的人多极了。  
상점 안의 사람은 **치극히** 많다.  
b. 这种行为简直愚蠢透了。  
이런 행위는 정말 **너무** 어리석다.  
c. 小李累坏了。  
사오리는 **매우** 피곤하다.  
d. 一天没吃饭, 我饿死了。  
하루 동안 밥을 못 먹어서 나는 배고파 **죽었다**.

위의 예문은 특수한 경우의 정도보어로 정도의 의미가 매우 심함을 표현한다. ‘极了’는 긍정적, 부정적 의미의 술어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반면, ‘透了’·‘坏了’·‘死了’는 대부분 부정적 의미의 술어와 함께 사용된다.

### 3. 중국어 정도보어의 한국어 번역 방안

일반적 의미의 정도보어는 학자에 따라 서로 구조적 의미적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상태보어와 정도보어로 나뉘어 재차 설명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 12) a. 她写得**好**。  
그녀는 **잘** 적는다.  
b. 他想**极了**。  
그는 **치극히** 그리워한다.

a와 b는 모두 정도보어 구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구조적 특징과 의미적 차이를 보인다. a에서는 ‘글자의 작성 상태가 어떠한지’를 묘사하고 있지만, b에서는 ‘그리워하는 정도가 어떠한지’를 밝히고 있다. 즉 a는 상태

를, b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의 학자들은 이들을 구분하여 a류의 보어를 상태보어(狀態補語)라고 하고, b류의 보어를 정도보어(程度補語)라고 한다. 본 장에서는 정도보어의 번역을 더욱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이러한 세분된 학설을 참고하기로 한다.<sup>13)</sup>

### 1) 상태보어인 경우

상태보어란 술어의 동작이나 행위에 의해 비롯되는 상태 관련 보충어들을 말한다. 상태와 관련된 표현들이 바로 술어 동작 및 행위의 결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법서에서는 결과정도보어(結果程度補語)라고 부르기도 한다.<sup>14)</sup> 백수진 교수는 상태와 관련된 표현들이 바로 술어의 동작이나 행위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보아 이를 근거로 정도보어의 술보구조(述補構造)를 ‘~하는 정도로 ~하다’ 혹은 ‘~한 결과가 ~하다’로 번역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sup>15)</sup>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다른 시각에서 분석한 것으로 약간의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시각에 관해 중국의 朱德熙 선생은 문장을 분석하는데 있어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즉, 술보구조를 주술구조(主述構造)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제기한 바 있다. 예를 들면,

- 13) a. 写得 好  
술어 보어  
b. 写得 好

13) 본고에서는 ‘許成道譯, 『현대중국어어법론』, 위의 책, 279~294쪽’과 ‘심숙현 옮김, 『현대중국어어법』, 서울: 학고방, 2001, 303~346쪽’ 및 ‘崔承一, 『現代漢語句型』, 中國: 延邊大學出版社, 1988, 125~141쪽’ 등을 주로 참고한다.

14) 陳重瑜, 「述語補語에 대하여」, 『補語研究』, 서울: 학고방, 1994, 212쪽.  
許成道 譯, 『현대중국어어법론』, 위의 책, 280쪽.

15) 白水振, 「중국어·한국어 번역의 이론과 실제(4)」, 『中國語文學譯叢』 第10輯, 慶山: 嶺南大學校 中國文學研究室, 1999, 17~22쪽.

주어 술어

a를 b에서처럼 “写得好”의 ‘写得’를 体词性结构(즉, ‘的’字结构)가 주어로 쓰인 형태로 보고, ‘好’를 谓语句로 간주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불합리하다”<sup>16)</sup>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견해의 근거는 이들 상태보어가 기본적으로 술어 동작의 결과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를 경우 다음의 예문처럼 번역이 가능할 것이다.

- 14) a. 写得(=的) 非常好。  
주어 술어  
쓴 것이 아주 훌륭하다.

하지만 朱德熙 선생은 분명히 이러한 견해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왜냐하면 “동사 后缀 ‘得’와 助词 ‘的’는 동일하지 않다”<sup>17)</sup>고 설명하고 있다. 더구나 북경어에서 ‘的’자구가 주어로 사용된 형태와 상태를 나타내는 ‘得’자 술보구조는 상호 대조적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 15) a. 煮的烂, 蒸的不烂。  
삶은 것은 말랑말랑하고, 찐 것은 말랑말랑하지 않다.  
好的多, 坏的少。  
좋은 것은 많고, 나쁜 것은 적다.  
b. 煮得烂, 才好吃。  
말랑말랑하게 삶아야 맛있다.  
这本比那本好得多。  
이 책은 저 책보다 훨씬 좋다.

a와 b에 나오는 “煮的”와 ‘煮得’, ‘好的’와 ‘好得’의 발음은 같지만, 실제로는 같지 않다. a는 主谓结构가 주어로 쓰인 형태이고, b는 述补结构인데 이들의

16) 許成道 譯, 『현대중국어어법론』, 위의 책, 280쪽.

17) 許成道 譯, 『현대중국어어법론』, 위의 책, 280쪽.

구조와 의미는 모두 다르다.”<sup>18)</sup> 즉, 이들은 구조나 의미상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예문 14) ‘写得非常好’에서 보어 ‘非常好’가 술어 ‘写’ 행위의 결과 상태를 표현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非常好’한 정도로 ‘写’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지, ‘写’의 행위 결과 ‘非常好’한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즉 ‘写’ 행위의 상태 및 상황의 정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지, 행위의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백수진 교수가 제안한 ‘~한 결과가 ~하다’라는 방법으로 번역할 경우, 본래의 중국어 문장이 갖는 술보구조가 주술구조로 전환된다는 점에 있다. 이 문장은 ‘매우 잘 쓴다’라고 번역되어야 자연스럽게 중국어 문장 본래의 술보구조와 정도보어의 의미적 특징을 제대로 살릴 수 있게 된다.

상태보어는 주어가 주동적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수동적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크게 2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1) 주어가 행위자(行動者)인 경우

#### A. 보어가 주어를 묘사하는 경우

- 16) a. 小麦长得很好。  
밀은 아주 잘 자란다.  
b. 小陈的脸色变得十分苍白。  
진군의 안색은 아주 창백하게 변했다.  
c. 他吃得越来越胖了。  
그는 점점 더 살 찰 만큼 먹었다.  
d. 他们唱得嗓子都哑了。  
그들은 목이 다 쉴 만큼 노래했다.  
e. 弟弟乐得合不拢嘴。  
남동생은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즐겁다.  
f. 我走得累死了。

18) 許成道 譯, 『현대중국어어법론』, 위의 책, 281쪽.

나는 피곤해 죽을 만큼 걸었다.

a와 b는 형용사로 된 상태보어의 경우로서 부사어처럼 번역됨을 알 수 있다. c와 d는 동사로 된 상태보어로서 ‘~하는 만큼’으로 번역된다. e와 f는 술목구와 술보구로 된 경우이며 또한 술어가 자동사인 경우이다. 이 경우 역시 ‘~하는 만큼’으로 번역된다.

B. 보어가 술어를 묘사하는 경우

- 17) a. 鸽子飞得很高.  
비둘기는 아주 높게 난다. (날고 있다.)  
b. 他擦得很亮.  
그는 아주 빛나게 닦는다. (닦고 있다.)  
c. 鸽子飞得高.  
비둘기는 높게 난다.  
d. 他擦得亮.  
그는 빛나게 닦는다.

위 문장은 모두 형용사가 보어로 사용되어 술어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c와 d에서 보어가 형용사 단독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태보어로서 형용사가 단독으로 사용되면 그 내용이 단정적 의미를 갖게 된다. 즉 화자(話者) 스스로가 과학적이거나 객관적 사실에 가깝다고 확신하여 말할 경우에 사용된다.<sup>19)</sup> 반면 a와 b처럼 형용사 앞에 수식어를 지닐 경우에는 묘사적 성질을 띠게 된다.<sup>20)</sup> 따라서 “단정적 언급인

19) 예를 들면, ‘모든 수에 영을 곱하면 영이 된다’는 것처럼 과학적 사실이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게 된다. (許成道 譯, 『현대중국어어법론』, 위의 책, 281쪽)

20) 묘사적 성질을 띠게 된다는 것은 과학적이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자신의 감정이나 감각에 의해 파악된 사실을 밝힌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든 수에 영을 곱하면 영이 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라는 류이다. (許成道 譯, 『현대중국어어법론』, 위의 책, 282쪽)

‘飛得高’는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으로 높게 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는 말이며, ‘飛得很高’, ‘飛得高高的’는 화자가 보기에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sup>21)</sup> 따라서 a와 b는 자연스럽게 동태적(動態的)인 사실을 표현하게 되고, 반면 c와 d는 정태적(情態的) 내용을 띠게 된다. 동태적이란 것은 동작의 결과 때문에 상태의 변화가 있음을 말하게 되고 정태적이란 것은 확정적이거나 고정적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飛得很高’는 ‘날은 결과 아주 높이 떠 있음’을 나타내게 되고, ‘飛得高’는 ‘높이 나는 것’을 말하는데, ‘더 높이 나는 것’이거나 ‘대단하게 높이 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높이 나는 것’ 그 자체만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하여 c와 d는 단순한 사실만을 언급했지만, a와 b에서는 동작의 결과로 인한 상태의 변화가 존재함을 의미함으로써 위의 예문을 번역하는데 있어 ( ) 속에서처럼 ‘~하고 있다’의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 C. 보어가 밝혀져 있지 않은 수동자(受動者)를 묘사하는 경우

- 18) a. 小明擦得亮极了。  
사오밍은 **아주 빛나게** 닦았다.  
b. 张三说得我也听不懂。  
장산은 **나도 알아듣지 못할 만큼** 말한다.

이 경우 보어에는 형용사가 많이 사용되며 부사어처럼 번역된다. 이때 보어 ‘亮极了’와 ‘我也听不懂’은 모두 문장에 표현되지 않은 어떤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a를 예로 들어 문장을 나누어 분석해 보면, 보어의 직접적인 묘사 대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29) 小明擦得亮极了。  
= 小明擦了。(玻璃/桌子/地板 등) + (玻璃/桌子/地板 등) 亮极了。

21) 許成道 譯, 『현대중국어어법론』, 위의 책, 282쪽.

즉, 사오밍이 무엇(유리/탁자/바닥 등)인가를 닦았고, 그 무엇인가가 아주 빛났다는 의미이다.

D. 보어가 주어의 일부분을 묘사하는 경우

- 20) a. 他哭得眼睛都肿了。  
그는 눈까지 부어오를 만큼 울었다.  
b. 他喊得嗓子都哑了。  
그는 목이 다 쉴 만큼 고함쳤다.  
c. 她累得腰都直不起来了。  
그녀는 허리도 펴 수 없을 만큼 피곤했다.

이 경우 보어에는 주술구가 많이 사용되며, 주술구의 소주어(小主語)는 문장 전체 대주어(大主語)의 일부 내용이거나 부분이어야 한다. 또 문미에는 어기조사 ‘了’를 가져와 문장의 내용이 이미 발생한 내용임을 표현하게 된다. 그리하여 번역은 ‘~만큼 ~했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 보어가 술어의 내용을 판단하는 경우

- 21) a. 他们学得不好。  
그들은 잘 배우지 못한다.  
b. 小李唱得好。  
사오리는 (노래를) 잘 부른다.  
c. 他写得不对。  
그는 맞지 않게 적는다.

이 경우 보어에는 긍정형식이든 부정형식이든 모두 가능하지만, 대개 부정형식의 보어가 많이 사용되는 편이다. 그래서 보어가 술어의 행위나 동작 자체를 판단하게 되며 부사어처럼 번역된다.

## F. 보어가 겸어(兼語) 형식인 경우

- 22) a. 苹果压得**树枝都弯了**。  
사과가 **가지가 휘 만큼** 눌렀다.  
b. 我们打得**敌人哭爹叫娘**。  
우리는 **적의 아버지 어머니를 불러댈 만큼** 때렸다.

보어에는 주술구가 사용되어야 하며, 이때의 주어는 의미상 겸어(兼語)가 된다. 즉 보어구의 주어가 ‘得’자 앞 술어의 수동자(受動者)이면서 ‘得’자 뒤 술어의 행위자(行動者)가 된다는 것이다. a를 예로 들어보면, ‘苹果’는 ‘压’의 행위를 행하고, ‘树枝’는 ‘压’의 행위를 받게 된다. 그리고 ‘弯’은 ‘树枝’가 행하여지는 상태이다. 이 경우 역시 ‘~만큼 ~하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 (2) 주어가 수동자(受動者)인 경우

이번에는 주어가 행위자(行動者)가 아닌 수동자(受動者)로 된 구문들을 살펴보자. 주어가 수동자가 된다는 말은 곧 ‘주어가 술어 행위의 대상자이다’라는 말이다. 예를 들면,

- 23) a. 玻璃擦得**亮极了**。  
**유리는 아주 빛나게** 닦았다.  
b. 玻璃被擦得**亮极了**。  
**유리는 아주 빛나게** 닦았다.

이 경우 ‘玻璃’는 술어 ‘擦’ 행위의 수동자가 된다. 왜냐하면 ‘玻璃’는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이뤄낼 수 없는 무생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玻璃’가 오히려 ‘擦’의 행위를 받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결국 a는 b의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지님을 알 수 있다. 즉 a는 바로 b에서 ‘擦’ 앞에 놓인 ‘被’가 생략된

문장이며 두 구문은 같은 의미를 갖는 동일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被’는 사용과 생략에 있어 상당히 자유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보어가 주어(를) 묘사하는 경우

- 24) a. 屋子收拾得乾乾淨淨。  
방은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었다.  
b. 他吓得站也站不穩, 坐也坐不安。  
그는 서 있어도 차분하게 서 있을 수 없고 앉아도 편안하게 앉  
있을 수 없을 만큼 놀랐다.

a의 경우 주어 ‘屋子’는 술어 ‘收拾’ 행위의 대상물이며, 보어 ‘乾乾淨淨’은 술어 ‘收拾’ 행위에서 비롯되는 주어 ‘屋子’의 상태이다. 그렇다면 번역은 당연히 a의 경우처럼 보어가 형용사인 경우 ‘~하게 ~되다’ 내지 ‘~하게 ~당하다’로 되어야 할 것이고, b의 경우처럼 보어가 구(주술구/동목구/동보구 등)일 경우에는 ‘~만큼 ~되다’ ‘~만큼 ~당한다’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B. 보어가 술어(를) 묘사하는 경우

- 25) a. 口号喊得很向亮。  
구호는 아주 우렁차게 외친다.  
b. 汉语说得很流利。  
중국어는 아주 유창하게 말한다.

이 경우 보어는 형용사가 주로 사용된다. a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어 ‘口号’는 술어 ‘喊’ 행위의 대상물이며, 보어 ‘很向亮’은 술어 행위의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하게 ~되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 C. 보어가 밝혀져 있지 않은 행위자(行動者)를 묘사하는 경우

- 26) a. (看)书看得忘了吃饭。  
 식사하는 걸 잊었을 만큼 책을 보았다.  
 b. 话谈得很投机。  
 말이 죽이 아주 잘 맞을 만큼 잘 통한다.

a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어 ‘书’는 술어 ‘看’ 행위의 대상물이며, 보어 ‘忘了吃饭’은 밝혀지지 않은 누군가에게 이루어진 내용이다. 그렇다면 a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27) a. (看)书看得忘了吃饭。  
 = (看)书了。(책을 보았다.) + (他)忘了吃饭。((그는) 식사하는 걸 잊어버렸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이 역시 ‘~만큼 ~되다’ 혹은 ‘~만큼 ~당한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 D. 보어가 주어의 일부분을 묘사하는 경우

- 28) a. 他打得脸都肿了。  
 그는 얼굴이 부었을 만큼 (두들겨) 맞았다.  
 b. 这双鞋穿得底都快透了。  
 이 신발은 밑이 다 닳았을 만큼 신었다.

이 경우는 보어구의 주어가 전체 주어의 일부이어야 한다. 즉 a의 경우에 보어구의 주어 ‘脸’은 전체 주어 ‘他’의 신체 일부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만큼 ~되다’ 혹은 ‘~만큼 ~당한다’로 번역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E. 보어가 술어의 내용을 판단하는 경우

- 29) a. 这种技术学得不错。  
이런 기술을 **괜찮을 만큼 잘 배운다.**  
b. 歌儿唱得好。  
노래는 **훌륭하리 만큼 잘 부른다.**

이러한 경우 보어에는 형용사가 주로 사용된다. 이 역시 부사어처럼 번역해도 무방하지만, 정도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한다면 ‘~만큼 ~하다’로 번역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이중적 성질을 갖는 경우

- 30) 追得我直喘气。  
a. **내가 숨을 헐떡일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쫓아왔다.  
b. (다른 사람이) **내가 숨을 헐떡일 만큼** 나를 쫓아왔다.

이 예문에서 ‘我’는 ‘追’ 동사의 행위자로 이해될 수도 있고, 또한 수동자로 이해될 수도 있다. ‘我’가 행위자일 경우, ‘我追别人, 我喘气’(내가 다른 사람을 쫓다가 내가 숨을 헐떡였다)로 이해될 수 있다. 반대로 수동자일 경우, ‘别人追我, 我喘气’(다른 사람이 나를 쫓아와서 나는 숨을 헐떡였다)로 이해될 수 있다.

위의 문장에는 주어가 없다. 그러나 주어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중의성(重義性)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 31) 这孩子追得我直喘气。  
이 아이는 **내가 숨을 헐떡일 만큼** 쫓아왔다.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 32) a. 我追孩子, 我喘气。

- 내가 아이를 쫓아오다가, 내가 숨이 찼다.  
 b. 孩子追我, 我喘气。  
 아이가 나를 쫓아오니, 내가 숨이 찼다.  
 c. 孩子追我, 孩子喘气。  
 아이가 나를 쫓아오다가, 아이가 숨이 찼다.

심지어 행위자도 수동자도 아닌 경우가 있다.

- 33) a. 隔壁那帮人不停地唱, 唱得我一宿睡不着觉。  
 이웃의 그 사람들은 내가 하루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노래를 한다.  
 b. 他老是讲他自己的事儿, 讲得我都不耐烦了。  
 그는 내가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항상 자기 자신의 일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이중적 또는 다중적 의미의 문장이 소리로서 표현될 경우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화자(話者)가 어디에 중음(重音) 즉 악센트를 주느냐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 34) a. 热得我<sup>1</sup>都出汗了。  
 나<sup>1</sup>도 땀을 흘릴 만큼 덥다.  
 b. 热得我<sup>2</sup>都出汗了。  
 나<sup>2</sup>도 땀을 흘릴 만큼 덥다.

a에서는 ‘我’에 강세를 둔 경우로 ‘나도’가 강조되고, b에서는 ‘汗’에 강세를 두어 ‘땀’이 강조된다.

## 2) 정도보어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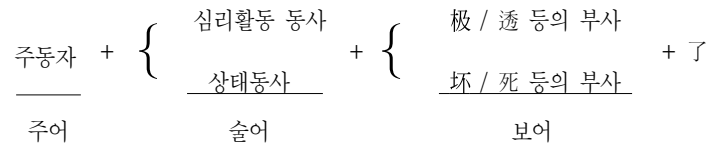
정도보어란 술어의 동작이나 행위에 정도의 의미를 보충하는 보어 성분을 말한다. 그리고 이들은 항상 심리활동 동사나 상태 동사 뒤에 놓이며 이들과 함께 결합하여 술보구(述補句)를 형성한다. 이들 역시 주어의 주동(主動) 또는 수동(受動)적 관계에 의해 2가지로 구분된다.

### (1) 주동주어 정도보어(施事主語程度補語)

이는 행위자가 주어로 사용된 정도보어 구문이라는 의미이다. 즉 주어가 행위자이고 술어는 심리활동 동사나 상태 동사이고, 보어에는 ‘极’·‘透’·‘坏’·‘死’·‘很’·‘不得了’ 등이 사용된다. 이들 보어는 품사상 정도의 의미를 갖는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A. ‘极’·‘透’·‘坏’·‘死’ 등

‘极’와 ‘透’의 경우에는 주로 타동사가 술어로 사용되고 ‘坏’와 ‘死’의 경우에는 술어에 상태 동사가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이들의 문미에는 항상 ‘了’가 함께 사용된다. 그래서 대개 다음과 같은 구문형식을 이루게 된다.



이 경우의 보어는 모두 정도의 의미를 갖는 부사어로 번역된다. 예를 들면,

- 35) a. 她想極了。  
그녀는 **지극히** 그리워했다.
- b. 我喜歡極了。  
나는 **아주** 좋아한다.
- c. 他說透了。  
그는 **분명히** 말했다.
- d. 我摸透了。  
나는 **완전히** 알아냈다.
- e. 他忙壞了。  
그는 **매우** 바쁘다.
- f. 小李累壞了。  
사오리는 **매우** 피곤하다.
- g. 我悶死了。  
나는 **축이도록** 답답하다.
- h. 我急死了。  
나는 **축이도록** 급하다.

때로는 다음과 같은 결과보어 구문들과 혼동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 36) a. 他涼乾了。  
그는 **말끔히** 식혔다.
- b. 他挖淺了。  
그는 **얕게** 팠다.
- c. 他挖深了。  
그는 **깊게** 팠다.

이들은 ‘동사+형용사+了’의 형태를 보이는 결과보어 구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일반적으로 ‘술어(述語)한 결과 보어(補語)해졌다’는 의미로 번역되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 부사어처럼 번역된다. 그리고 이들 간에도 의미를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해 보면 약간의 의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a는 ‘어떤 결과의 실현’을 의미하지만,<sup>22)</sup> b는 ‘어떤 예상된 결과의 빗나감’을 의미한

다.<sup>23)</sup> 그리고 c는 a 또는 b의 의미가 모두 가능한 경우이다.

또한 a·b 문장의 동보구(動補句)를 내부적으로 좀 더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37) a. 涼乾了。  
 [식히는 행위가 말끔하게 완성되었다.]  
 b. 挖淺了。  
 [(구덩이를) 파는데 얇았다.]

이처럼 내부구조를 좀 더 분석해 보면 의미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다. a의 경우에는 ‘말끔하게 식은 결과가 출현했음’을 알 수 있고, b의 경우에는 ‘구덩이 파는 행위를 한 결과가 (예상했던 결과보다) 얇다는 사실이 출현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여기서처럼 대개의 결과보어는 술어 동작이나 행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표현한다. 반면 정도보어는 술어 동작이나 행위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표현한다. 하지만 결과보어 역시 부사어로 번역되기도 하여 정도보어와 혼동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간에는 위와 같은 차이를 갖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다.

#### B. ‘很’·‘厉害’·‘不得了’ 등

22) 이런 종류에는 주로褒贬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가 사용되며, 이들은 다시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즉 포의(褒义) 형용사와 폼의(贬义) 형용사이다. 포의 형용사에는 乾淨·好·整齐·乖·平·明白·顺·直·活·舒服·聪明·快 등을 들 수 있고, 폼의 형용사에는 脏·糟·乱·野·皱·糊涂·弯·累·钝 등을 들 수 있다. 만약 이런 종류의 형용사로 예상된 결과의 빛나감이란 의미를 나타내려면 ‘V+ 형용사+了’의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V+得過於(또는 太)+ 형용사+了’의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洗得過於(太)乾淨了。(너무(/매우) 깨끗하게 빨았다.)이다.

23) 이런 경우에는 포 폼(褒贬) 류를 제외한 나머지의 형용사들이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① 도량(度量) 형용사: 大·小·长·短·高·低(矮)·宽·窄·厚·薄·深·浅·粗·细·远·近·快·慢·晚(迟)·早 등, ② 색채(色彩) 형용사: 白·黑·红·黄·绿·淡·浓 등, ③ 미각(味觉) 형용사: 甜·酸·咸·辣·淡·浓 등, ④ 기타: 暗·亮·稀·稠·密·松·紧·严·肥·胖·瘦·软·硬·尖·烂 등

이들이 보어로 사용되면 술어와 보어 사이에 구조조사 ‘得’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번역은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도의 의미를 갖는 부사어처럼 진행된다. 예를 들면,

- 38) a. 我想念得**很**.  
나는 **매우** 그리워한다.  
b. 他鬧得**厉害**.  
그는 **심하게** 소란을 피운다.  
c. 她愛得**不得了**.  
그녀는 **몹시** 사랑한다.  
d. 我喜歡得**了不得**.  
나는 **대단히** 좋아한다.

넓은 의미의 정도보어, 즉 앞서 설명한 상태보어에서든 여기서 설명하는 정도보어에서든 보어가 부사어로 번역되는 경우, 실제 부사가 수식어로 사용되어 표현된 경우와는 의미상 차이를 갖는다. 예를 들면,

- 39) a. 他写信写得**很快**.  
그는 편지를 **아주 빠르게** 쓴다.  
b. 他**很快地**写了一封信.  
그는 **아주 빨리** 편지 한 통을 썼다.

a는 정도보어가 사용된 문장이고, b는 부사어가 사용된 문장이다. 비록 문장 구조가 다르지만, 의미상 차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엄밀히 분석해 보면 그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즉 정도보어는 술어의 동작이 진행된 정도를 보충 설명하는 것으로 묘사적이다. 반면 부사어는 동작이 진행되는 상태나 방식 등을 수식하는 것으로 서술적이다. 정도보어의 중심어인 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은 일반적으로 이미 완성되었거나 항상 발생하는 내용들이다. 예를 들면,

- 40) a. 快跑!  
**빨리** 뛰어! (빠른 속도로 뛰어야 한다)
- b. 他跑得快。  
 그는 **빨리** 뛰다. (과거나 현재의 그가 뛰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가 뛰는 속도가 빠르다)

(2) 수동주어 정도보어(受事主語程度補語)

이는 수동자(受動者)가 주어로 사용된 정도보어 구문이라는 의미이다. 즉 주어가 술어의 동작이나 행위를 받게 되는 수동자이고 술어에는 항상 심리활동 동사가 사용된다. 예를 들면,

- 41) a. 这本书喜欢极了。  
 이 책이 **매우** 좋아졌다.
- b. 家里的事儿惦记极了。  
 집안 일이 **치극히** 걱정되었다.
- c. 道理说透了。  
 이치를 **분명히** 말했다.
- d. 文件精神吃透了。  
 문건의 내용이 **철저하게** 파악되었다.

위 예문의 주어 ‘书’·‘事儿’·‘道理’·‘精神’은 모두 술어 ‘喜欢’·‘惦记’·‘说’·‘吃’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보어로 역시 ‘极’·‘透’·‘坏’·‘死’ 등이 사용된다. 이 경우 역시 정도의 의미를 갖는 부사어처럼 번역된다.

4. 나오는 말

중국어에서는 보어가 한국어에서보다 더욱 폭넓게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 상에 사용되는 보어는 정의와 기능에 있어 서로 다르게 사

용된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보어가 주어 성분을 보충 설명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술어의 내용을 보충 설명한다. 이처럼 두 언어 간에는 보어의 기능과 역할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한번역이든 한·중번역이든 간에 보어를 동일 성분으로 전환하여 사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의 번역을 수행하든 보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본고에서는 정도보어와 관련한 중·한번역의 틀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 결과 몇 가지의 번역 방식을 찾아낼 수 있었다. 첫째로는, 보어가 형용사일 경우 대체로 부사어처럼 번역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주어가 행위자인 경우 보어가 동사나 구로써 사용되면 ‘~만큼 ~하다’로 번역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주어가 수동자인 경우에는 ‘~만큼 ~되다’ 내지 ‘~만큼 ~당한다’로 번역된다는 것이다. 넷째로는, 문미에 ‘了’가 사용되면 술어의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며, ‘~만큼 ~하였다’ 혹은 ‘~만큼 ~되었다’로 번역된다는 것이다. 다섯째로는, 좁은 의미의 정도보어는 모두 부사어처럼 번역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는 정도보어에 대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번역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사용 가능한 거의 모든 정도보어 구문형식을 번역과 함께 망라하고 있어 정도보어의 번역 방법뿐만 아니라 덤으로 그 해당 구문형식까지도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參考文獻

- 김영수, 「한어의 ‘得’자 보충어의 의미와 조선어에서의 대응관계」, 『중국조선어문』, 1997.
- 荀春生, 「对日本学生的补语教学」, 『对外汉语教学论文选』, 北京: 北京语言学院, 1983.
- 崔 桓, 『現代中國語表現語法』, 대구: 중문, 2001.
- 許成道, 『현대중국어어법론』, 서울: 사람과 책, 1997.
- 맹주익, 『현대중국어문법』, 서울: 청년사, 1994.
- 南宮良錫·尹貞姬, 『중국어기초문법』, 서울: 시사에듀케이션, 1997.
- 심숙현·윤김, 『현대중국어어법』, 서울: 학고방, 2001.
- 崔承一, 『现代汉语句型』, 中国: 延边大学出版社, 1988.
- 陳重瑜, 「述語補語에 대하여」, 『補語研究』, 서울: 학고방, 1994.
- 白水振, 「중국어·한국어 번역의 이론과 실제(4)」, 『中國語文學譯叢』 第10輯, 慶山: 嶺南大學校 中國文學研究室, 1999.
- 呂叔湘, 『新現代漢語800詞』, 서울: 동양문고, 2000.
- 류기수, 『중국어포인트999』 서울: 시사에듀케이션, 1998.
- 佟慧君, 『外国人学汉语病句分析』, 北京: 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86.
- 张 敏, 『朝汉翻译教程』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1992.
- 崔承一, 『现代汉语句型』 延吉: 延边大学出版社, 1988.
- 한동오, 『중한통역예술』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1994.
- 장의원, 『중국어번역기초』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1994.
- 최기천, 『중국어번역법』, 서울: 학고방, 1997.
- 朴鍾漢, 「중국어번역기법모색」, 『中國語文學』 第32輯, 慶山: 嶺南中國語文學會, 1998.
- 임영학, 「教學을 위한 中韓翻譯의 實際(Ⅱ): 정도보어를 중심으로」,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논문집, 2001.
- 위수광, 「현대 한어 정도보어 상태보어 구조상 비교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 석사학위논문, 2004.
- 변지영, 「현대 중국어 ‘원인-결과’ 표시 정도보어 구조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선희, 「현대 중국어의 정도보어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黄叶明, 「现代汉语状态补语的语义指向分析」, 浙江大学 硕士学位论文, 2007.
- 农朗诗, 「程度补语“极”、“透”、“死”、“坏”个体研究」, 广西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07.
- 박현정, 「현행 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교과서《轻轻松松》의 정도보어 분석과 그 효과적인 지도방안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지은, 「중국어 정도보어 지도방안 연구: 외국어 고등학교 교과서〈轻轻松松〉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은화, 「중국어 정도보어의 한국어 대응형식과 한국인 학습자의 정도보어 습득의 상관」, 中國語文論叢, 2011.
- 유승리, 「현행 중국어 교과서(8종)에 출현한 程度補語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이경진, 「보어에 나타난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 ‘跑得快’의 중한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2015.
- 민송이, 「고등학교 『중국어 I』의 정도 표현 활용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周 怡, 「现代汉语“得”字程度补语结构的句法研究」, 湘潭大学 硕士学位论文, 2018.
- 위수광, 「교육문법항목 ‘정도보어’의 현황분석과 표준화를 위한 제언」, 『중국어문학논집』 제115호, 2019.
- 체혜민, 「고등학교 교과서 『중국어 I·II』 정도보어 지도방안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Abstract

A practical method of translating Chinese State complement into Korean

You, Jae Sung · Lee, Yong Tae

In Chinese, the complement word is more widely used than in Korean. And the complement word used in Korean and Chinese is used differently in definition and function. In particular, in Korean, the complement word supplements the subject matter, but in Chinese, the contents of predicates are supplemented. As such,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complement words are completely different between the two languages.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convert the complement words into the same component and use it, whether it is a Chinese or Korean translation. Therefore, no matter what type of translation is performed, it is inevitable to find a solution to the complement word. As part of these efforts, this paper seeks to find a framework for Chinese translation related to the state complement.

**Key words** : Sentence element, Complement words, Chinese State complement, Structural postposition word 'de', Korean translation

투 고 일 : 2024. 7. 10. / 심 사 일 : 2024. 7. 15.~ 2024. 8. 15. / 게재확정일 : 2024. 8. 20.